

해외전력사정

아시아의 에너지 개발 현황

개황

1.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아시아에서의 원유 및 가스의 생산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두 나라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강력한 수요 증가에 계속해서 밀리는 상황이었다. 중국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와 기술을 몹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에 취해진 조치들이 국제 석유회사들을 최종적으로 만족시켰다는 명확한 징조는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개발에 있어서 1994년의 슬럼프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만이 단 하나의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남아 있다. 중국은 몇 년간을 주요 수출국으로 있었으나 1993년에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석유 생산의 평탄한 상태 유지로 순수한 에너지 수입국이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도 다음 세기초에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수출국으로서의 자리가 좁힌 말레이시아와 함께 중국과 같은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늦게 참여하게 된 베트남은 1995년에 용기를 북돋는 새로운 자원

의 발견을 즐겼다. 그러나 그 생산량은 너무나 적어 아시아의 결신들린 에너지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에는 태부족인 것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석유에 대한 수요는 1995년 후기의 1420만배럴/일로부터 2005년에는 2163만배럴/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시장인 북미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의 에너지성은 밝히고 있다.

2. 동서센터의 분석

이 지역의 석유 수출은 아마도 1994년의 220만배럴/일에서 2005년에는 56만배럴/일로 줄어들 것으로 하와이의 동서센터(Hawaii's East-West Centre)의 분석가인 강 우(Kang Wu)씨의 연구 보고서에서 전망하고 있다. 수입으로 공급되는 원유의 비율은 1993년의 56%에서 2000년에는 67%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더 많은 에너지의 수입은 정치적으로 변덕스러운 중동지역으로부터 더욱 많이 수입하게 되어 1995년 수입의 71%에서 2001년에는 거의 93%로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으로부터의 불확실한 증가에 대

한 가능한 대체 방안이 두 가지가 있다. 즉 아시아에서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것과 극동 러시아에서의 석유와 가스의 생산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 생산자들은 다소 실패한 듯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중국

1. 두 자리 수치의 경제성장률

중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연간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유의 생산은 1994년의 1억 5000만톤에서 1995년에는 2.8%의 생산 증가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계 관리들은 1995년에는 해양에서의 생산이 30% 증가하여 900만톤이 될 것이며, 1996년에는 다시 100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저에서의 석유 생산은 동중국해에서의 새로운 개발과 아코차이나(Arch China)와 그의 파트너가 하이난(Hainan)성 인근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규모 천연 가스 전 등으로 그 전망이 양호하다. 그러나 생산량은 중국 총수요량의 몇 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ritish

인도네시아

Petroleum:BP)의 「세계 에너지의 통계적 평가」(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의하면 중국은 1994년에 1일 247,000배럴의 원유를 수입하였으며, 1일 301,00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액화 천연가스(LNG)의 대량 수입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 산업계의 한 관리는 1995년 중반에 오만, 카타르 및 러시아에 대해서 LNG 구매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리에 의하면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LNG를 위한 하부구조 설비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천연가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외국 회사가 액화 사업 및 2차 배관 프로젝트 추진에 관련하여 협조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2. 석유탐사예외의 외국 기업 유치

중국은 1995년에 외국 업체가 석유 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석유탐사예외는 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키기 위한 단 하나의 희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북서부의 오지와 해저의 새 유전에 달려 있으며, 이들 유전은 개발에 막대한 투자비와 기술적인 도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조치는 육상과 대륙붕의 중심이 낮은 해양의 몇몇 유전에 대한 로열티를 삭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

간 1백만톤 미만을 생산하는 유전은 이들이 티벳(Tibet), 신지앙(Zinjiang) 또는 킵하이(Qinghai)의 서부 끝에 위치하거나 대륙붕의 중심이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 과거에 적용하던 6.4%의 로열티를 면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삭감 조치는 중국이 타림(Tarim) 및 중간(Junggan)의 오지이기는 하나 유망한 사막 분지에서의 유전 개발을 위한 3차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취해진 것이었다. 또 다른 대책은 중국 지질석유공사(China Geological Oil Corp.)를 설립함으로써 확고부동한 거대 기업인 중국 석유 천연가스총공사(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육상사업만 취급)과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와 경쟁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3. 아직도 두꺼운 관료체제

그러나 중국의 석유산업 관료체제는 방대하며—중국 석유천연가스총공사는 150만명의 종업원을 포용하고 있다—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국수주의적이다. 외국 기업체들은 과거의 개발대상인 유상의 위치와 조건이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중국 지질석유공사의 해저개발 지점에 대한 외국 기업을 참여토록 하기 위한 시도는 기존 두 개의 거대 조직체로부터의 압력으로 취소되어 버렸다.

1. 자원 개발 활동의 침체

「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Asian Oil & Gas)」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개발 사이클은 1994년에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의 석유개발 시추의 수는 과거 7년간의 최소치인 70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새로운 시추를 위한 계약은 8년간의 최하치를 기록하였다. 4건의 새로운 계약이 2억 1000만달러 규모로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전년도의 3억 4800만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것이다.

1995년에도 박진감 넘치는 자원 개발의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지는 4건의 계약이 1995년의 첫 두달 동안에 성립되었으며, 규모가 1994년도의 연간 전체 규모와 맞먹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문지에 의하면 1995년은 개발 활동이 “황량함을 벗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2. 앞으로 25년간 연 경제 성장률 7%

인도네시아는 석유와 가스의 새로운 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리들은 아시아의 유일한 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이 나

해외전력사정

라는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2003년에 석유의 순수한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95년말에 인도네시아는 1일 약 15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국내 소비가 치솟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 25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7%의 기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석탄과 수력발전 자원을 보다 많이 사용하여 2008년까지는 순수 수입국이 되는 것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인도네시아는 엑손(Exxon)과 국영 석유회사 퍼타미나(Pertamina)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해양 나투나(Natuna) 가스전에서 채굴 가능한 45조입방피트의 막대한 양의 부존량에 대해서 앞으로의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영 석유회사는 나투나에서 나오는 LNG는 증가되는 중동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시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LNG는 1995년에 서명된 203억달러 어치의 2건의 계약 연장으로 2010년과 2011년까지 일본에 공급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1. 에너지 탐사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

다른 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 생산국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말레이시아는 그의 부존자원 개발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에 의해서 제시된 구미를 당기게 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외국 기업체들로 하여금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24억배럴의 유전에서 석유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영국의 석유 컨설턴트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의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발견된 부존자원은 말레이시아의 아직 남아 있는 채굴 가능한 부존량의 약 5분의 1 규모이다. 1995년말에 말레이시아는 1일 65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했으며 그 중에서 1일 40만배럴을 수출하였다.

우드 맥켄지의 특히 어떤 추정에 의하면 급속히 증가하는 국내 수요로 이 나라는 2002년에는 순수한 에너지의 수입국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말레이시아가 외국 기업이 발견한 자원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의 한 석유관계 인사의 의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수출 지향적인 제조부문이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석유 자원을 빨리 개발할 간절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석유 수출은 주로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이 대상이며 1994년도 총 수출액의 겨우 4.2%에 불과하였다.

2. 인도네시아 다음의 에너지 부국

그러나 이것이 말레이시아의 석유 탐사와 개발이 중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의 석유 및 가스」지에 의하면 말레이시아-타이 공동 개발 지구 및 말레이시아-베트남 상업 조정 지구에서 해저개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베트남 지구에서는 인터내셔널 석유 회사(International Petroleum Crop.)가 두 개의 갱정을 뚫었으며, 한 곳에서는 석유 그리고 다른 한 곳에서는 가스를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에쏘 프로덕션 말레이시아 사 (Esso Production Malaysia Inc.)는 라야(Raya) 복합지구와 용(Yong)에서 유전의 해저개발을 진행시키고 있다.

우드 맥켄지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에서 새로 개발되는 전체 에너지 천연자원 산지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는 가망이 있거나 유망한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22개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34개의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베트남

1. 계속되는 석유 수출의 증가

베트남은 아시아의 유일한 석유 수출

해외전력사정

을 증가시키고 있는 지위를 즐겨 왔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베트남의 원유 생산은 1994년의 700만톤에서 1995년에는 750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의 대부분은 수출되었다. 베트남은 국토의 동남부에서 기대되는 새 유전을 개발함으로써 2010년에는 연간 3천만 내지 4천만톤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1995년의 브리티시석유(British Petroleum) 및 노르웨이 스타토일(Statoil)의 조인트 벤처가 남콘손(Nam ConSon) 베이슨에서 세 곳의 유력한 천연가스를 발견한 것은 즐거운 놀라움이었다—거의 모든 노력이 석유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발에 참여한 회사들은 첫 2개소의 가스전의 매장량을 570억입방미터로 추정하고 있다. 마지막에 발견된 곳에 대한 매장량을 추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는 하나 그들은 그곳은 “고품질의 가스가 존재하며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2. 가스의 발견과 막대한 투자 문제

베트남의 채취 가능한 가스 부존량은 2850억입방미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거대 생산 기지의 부존량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베

트남의 경제개발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1995년에 개통된 가스 파이프라인은 이미 27만kW의 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스타토일은 발전소, 비료 공장 및 기타 용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400km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이프라인과 기타 하부구조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만만찮은 장애물인 것이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의 잠재적인 유전을 둘러싼 베트남과 중국간의 분쟁은 조만간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에 중국이 이 영역에 대한 클레임은 국제법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표현을 하였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중국이 개발권을 미국 회사인 크레스톤(Crestone)에게 양도한 개발 장소가 국제법에 의하면 베트남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기 타

1. 인도의 경우

인도는 1995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조인트벤처 탐사라운드(Joint Venture Exploration Round)에 대한 외국 석유회사들의 첫 반응은 좋았다. 「아시아 오일 및 가스」지에 의하면 165개

나 되는 회사들의 대표자들이 이 라운드의 첫 모임에 참가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열의를 보이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국영회사인 석유 및 천연가스공사(Oil and Natural Gas Corp. Ltd.:ONGC)와 인도 석유공사(Oil India Ltd.:OIL)가 조인트 벤처에 의한 탐사에 수반하는 리스크를 공동 분담하겠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라운드는 육상의 18블록과 해저의 10블록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된 조건들은 인도가 시장경제 개혁에 따라 가속화된 산업화로 1995 회계년도에 석유 수입이 5억달러 규모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시기에 맞추어 제시되었다. 석유, 고속디젤 및 운할유의 수입은 40~50%가 증가할 것으로 정부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2.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은 유망한 탐사지역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 수 있도록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가격통제는 1995년에 이익 마진을 낮추게 됨에 따라 이자 지불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해외 전력사정

극동 러시아

하와이 동서센터(East-West Centre)의 한 권위자인 유젠 칼투코프(Eugene Khartukov)씨에 의하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증가하는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공급자를 러시아의 태평양 전초지인 극동 러시아(Russian Far East:RFE)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RFP의 천연가스 공급은 막대한 외국 투자를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투자는 "그 지역의 투

자 환경의 근원적인 개선"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칼투코프씨는 경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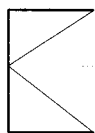
석 탄

인도네시아의 스와바라 그룹(Swabara Group)의 회장이며 최고 경영 책임자(CEO)인 그레메 로버트슨(Graeme Robertson)씨가 1995년에 로이터(Reuters)에 말한 바에 의하면 아시아는 앞으로 7년간 더욱 많아지는 전력생산의 필요성에 대응하려면 매년 5000

만톤의 석탄 생산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증가된 석탄수요에 대한 공급은 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타이,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맡게 되며 타이완에서도 약간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증기발생용 석탄 생산국인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가 이와 같은 막대한 석탄수요에 대처하는데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자료: Asia 1996 Yearbook)



방글라데시의 외국인 투자 러시



1. 급증하는 외국인 투자

파업과 정치적인 혼란과 격변을 염려하여 관망 자세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방글라데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나라에서는 1995년 7월과 11월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록적인 8억 5천만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1995년 6월 30일에 끝나는 회계년도 기간중에 7억 5천만달러에 이르는 투자 제의서를 제출하였다. 1993년 회계년도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금액이 5300만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이와 같은 전년도의 울적한 금액과 비교할 때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2. 투자 활성화와 투자 여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프로젝트는 그 건수는 많지 않으나 1년간이나 지속된 정치 위기로 의회 선거까지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나라인 방글라데시로서는 큰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인에

의한 투자도 마찬가지로 열기를 더하고 있으며 1995년에 7억 5천만달러의 투자 신청이 있었다. 만일 이것이 구체적인 투자로 현실화되는 경우 이와 같은 활동은 1995년에 5.1% 성장한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더욱 부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제의서 제출 시점과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시간 간격은 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다. 인도의 경우와는 달리 방글라데시의 투자진흥원(Board of Investment)은 투자 제의서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검토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투자진흥원

은 단지 프로젝트들을 등록만 하고 투자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롭게 인식된 이 나라의 환율의 안정성 그리고 외국인이 그들의 방글라데시 사업체를 100% 소유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 제의서의 간소화가 이 가난한 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인기의 급상승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투자진흥원의 예측

“우리는 개혁에 수반하는 과다기를 극복하였다. 이 개혁은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다”라고 방글라데시의 투자진흥원 원장인 타우픽 엘하이 초드리(Taufik Elahi Chowdhury)씨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사람은 큰 감명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분명히 투자제외서의 등록은 현금거래와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초드리씨는 모든 투자자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전부 추진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시인하고 있다. 투자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근년에 등록된 프로젝트의 약 35%가 서류수속을 마치지 못하여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4. 외국인 투자 상공회의소의 견해

이제 이 나라에서는 과거와 같은 과도한 형식 존중은 사라졌다. 그러나 투

자자들은 보다 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싱거 방글라데시(Singer Bangladesh)의 회장겸 최고 경영책임자이며 외국인투자자 상공회의소(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회장인 마버브 자밀(Mahbub Jamil)씨는 만일 정치적인 불안정과 관료적인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병목현상만 없다면 외국인의 투자규모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싱거씨는 이미 총투자 금액이 350만 달러에 이르는 세 개의 공장을 설립하였다. 한 곳에서는 이미 선풍기를 만들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텔레비전 수장기를 조립하고 있다. 그리고 세탁기 조립 공장이 1996년 1월 늦게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싱거는 1996년과 1997년에 500만달러까지 추가로 투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자밀씨는 말하고 있다.

5. 대우의 시멘트 플랜트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대우그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2억달러 규모의 시멘트 플랜트는 관료적인 그리고 형식주의적인 절차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대우는 1995년 3월에 국영기업체인 방글라데시 화학산업공사(Bangladesh Chemical Industries Corp.)와 조인트벤처 합의서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화학

공사는 조인트벤처에서 부담기로 합의한 바 있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우는 제지 플랜트, 발전소 그리고 통신 분야에 대한 개발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시멘트 프로젝트의 교착상태가 다른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붙들고 있다고 자밀씨는 말한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새로운 투자제외서의 약 35%는 섬유산업이다. 이 새로 싹트기 시작하는 분야는 동남아시아의 직물 생산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들 동남아시아의 직물 생산자들은 방글라데시의 재봉틀에 들어가는 직물의 90%를 그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으로서 방글라데시는 산업화된 선진국으로부터 수출 쿼터를 배정 받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방글라데시에 투자함으로써 수출 쿼터의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게 되며, 방글라데시에서 수출을 하게 된다.

6.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

미국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의 상무관인 래리 안드레(Larry Andre)씨는 “미국의 투자 규모는 매우 낮았다—단지 1천만달러가 지금까지의 투자된 규모의 전부이었다. 그러나 여섯 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서가 미국의 전력관련 회사와 방글라데시 정부간에 이루어지면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현재

해외전력사정

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들은 전력구매합의서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지연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 사업 이외의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열 개가 넘는 합계 30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전력 부문에서만 외국인 투자자들과 합의된 바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합의를 1996년 중반까지는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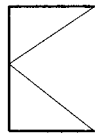
고 있다. 가정용 물품의 대 메이커인 프록터 앤드 갬블(Procter & Gamble)은 이 나라에 세계 공장을 건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7. 정치적인 교착상태가 걸림돌

투자진흥원의 초드리씨는 1996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20억달러에 이르는

제의를 등록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자밀씨는 잘 알려진 영국의 제조회사와 한국 회사의 경영진들이 프로젝트 협의를 위하여 뻘질나게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정치적인 교착상태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1.25)



인도 엔론 프로젝트의 환생 조건



1. 투자금액의 하향 조정

1995년 8월의 엔론(Enron)사가 추진하고 있는 봄베이 남쪽의 거대한 발전소 프로젝트의 갑작스러운 취소와 주민의 관심에 영합하는 주정부와의 험난한 협상은 표면상 이 프로젝트의 투자금액을 두들겨 내렸다. 혼신의 노력을 한 엔론의 한 경영자는 스마트하지 못하다고 의인화하고 있다. 그러나 레베카 마크(Rebecca Mark) 여사는 스마트하였으며, 그녀는 머리를 낮추고 희망 사항을 억제하였다.

미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엔론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에서의 대화소설과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는 인도가 화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발

전소에 대한 투자환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으며 또한 다른 주로 하여금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도록 충동질을 하게 되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개조된 엔론 프로젝트를 1995년 1월에 승인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조건이 개정되어야 하며 새로 출범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우리는 아직 이 프로젝트를 60 내지 90일 이내에 함께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엔론 개발회사(Enron Development Corp.)의 회장인 마크(Mark) 여사는 이 프로젝트의 재생 노력이 시작된 후 첫 인도 방문시에 말하였다. "우리가 사업

이 추진될 수 있기를 희망하기는 하지 만 우리는 너무 낙천적이 되지 않는 것을 바란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2. 많은 양보의 허용

마크 여사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만한 것이다. 왜냐 하면 부분적으로는 에너지가 인도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검토 결과 다브홀(Dabhol) 마을 인근의 프로젝트를 환경적으로 위험하고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철회 조치한 동일한 정부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마치 그들이 과거의 거래를 재포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엔론과 마찬가지로 개혁주의자들이 “조기 착공” 사업으로 지정한 전력 프로젝트의 한 경영인은 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들이 그것을 실증하고 있다. 당초의 계약은 엔론 주도의 컨소시엄과 마하라슈트라 주 정부의 전 정부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발전용량 201만 5천kW로서 추정공사비가 28억달러에 이르며 2단계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인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를 새정부는 발전용량을 218만 4천kW로 확대하고 투자비용을 25억달러로 축소시키며 엔론이 주정부에 판매하는 전기요금을 22.5% 삭감하도록 조정한 것이다.

3. 연료의 전환과 LNG 플랜트의 분리

그러나 몇몇 상세한 점들을 고려해 보자. 기술적인 개발과 가격이 내려가는 하드웨어는 엔론으로 하여금 거의 대부분 2단계 사업에서 비용을 삭감하면서 발전용량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계약이 파기될 당시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었던 제1단계 프로젝트는 69만 5천kW에서 74만kW로 용량이 확대되며 여기에 대한 투자금액은 당초의 9억 2천만달러를 약간 상회하게 된다. 그러나 엔론은 발전소의를 중유에서 나프타로 전환하게 되며, 산업분석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프타는 가격이 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청결한 연료인 것이

다.

제2단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카타르(Qatar)에 있는 엔론 소유의 가스전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4억 9500만달러의 LNG를 가스로 변환하는 플랜트는 별도의 조인트벤처로서 당초의 프로젝트 집단에서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LNG 가스 플랜트는 엔론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지만 제3자에게도 가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별도의 수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4. 전기요금의 하향 조정

표면상으로는 엔론은 정부 소유의 마하라슈트라 주 전기국에 판매하게 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보를 제의하였다. 당초 계획은 kWh당 최초의 전기요금은 2.40루피(rupee)로 하고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정된 합의서에 의하면 처음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kWh당 2.03루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금의 격차는 보다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제2단계가 준공되어 가동을 개시하면 전기요금은 kWh당 1.86루피로 고정되며, 이 전기요금은 20년간의 평균요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기요금에서 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서 40%로 낮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환율

은 1달러당 32루피로 고정하고 있는 것이다. 엔론에게 유리한 조건은 루피를 45.1:1의 환율로 달러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인도가 경제의 규제완화에 수반하여 더욱 약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공사 중단에 따르는 비용: \$250,000/일

엔론측은 다브홀 프로젝트를 다시 뜯어 맞추는데 있어서 공사가 정지되고 있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이 매일 25만 달러가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장비나 건설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엔론은 마하라슈트라 정부로부터의 보상을 얻어 내기 위한 중재절차를 취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마크씨는 말하고 있다. 다음 청문회는 1996년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양보는 주전기국(State Electricity Board)에게 30%의 지분을 주는 것이다. 엔론은 그의 지분은 50%로 삭감하며,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과 벡텔사(Bechtel Enterprises)가 각각 10%씩 지분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동안 마크씨는 새로운 합의 사항에 대한 논쟁을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단지 “이것은 전기국과 그리고 마하라슈트라 정부에게는 보다 좋은 거래가

해외전력사정

될 것이며 또한 우리들의 주주들에게도 좋은 그리고 공정한 배당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6. 장기적인 안목과 단기적인 안목

엔론의 환생은 외국 에너지관련 기업체의 몇 년전에 외국 전력관련 기업체들에게 개방을 하게 된 이후 인도를 의심의 눈초리로 관찰하던 경영자들로부터 혼성된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이이에스사(AES Corp.)의 한 단위인 에이이에스 트랜스파워(AES Transpower)의 사업 책임자인 함사 샤다크샤라파(Hamsa Shadakhsharappa)씨는 이렇게 말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주정부가 외국인의 전력

프로젝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려되는 사건이다. 왜냐하면 마할라슈트라라는 엔론을 쥐어짤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취하였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AES는 오리사(Orissa) 주정부의 요청으로 3년간에 네 번이나 조기 착공 프로젝트에 대한 전기요금 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AES는 그의 마지막 제의서에서 기준 전기요금과 투자금액을 각각 거의 13%씩 삭감하였다. 오리사는 1996년 1월말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주 정부는 이미 잡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잡음은 모든 새로 건설되는 전력 프로젝트는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표준화 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7. 정치적인 과제가 최우선

인도의 전력성 장관은 이제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제의서에 대한 평가 및 자금 조달에 대한 복잡한 절차를 능률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몇몇 주는 부채 투성이의 전력회사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서로 연관성이 없고 분리된 조치들은 총선거를 앞두고 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치적인 의지를 표출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인 안건이 훨씬 높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유럽의 한 에너지 회사의 인도 지사장은 애석해 하고 있다.

(자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2.1)

엔론이 인도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1. 투자금액의 축소와 발전설비용량의 증대

엔론사(Enron Corp.)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정부와 몇 달간의 견디기 어려운 교섭 끝에 드디어 1996년 1월 8일 이 나라의 말썽도 많았던 다브홀(Dabhol) 전력 프로

젝트를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995년 여름에 마하라슈트라주의 신임 수석장관 마노할 조시(Manohar Joshi)씨는 공사비가 과당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바다로 밀어내어 수몰시켜 버리겠다고 서약하면서 수석장관에 취임하였던 것이다.

조시 수석장관은 이제 이 싸움에서 가장 큰 승리자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거래에서 엔론으로 하여금 프로젝트에 대한 투입금액을 11% 낮추어 25억달러로 감축시켰으며, 엔론이 전기사용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전기요금을 낮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 소유의 전기회사를 이 프로젝

트의 새로운 30% 지분의 파트너로서 참여토록 하였다. 또한 새로 합의된 거래에서는 발전소의 출력을 당초의 201만 5천kW에서 245만kW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인도정부의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 kW당 건설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발전소가 되었다고 한다. 조시씨는 "이 결정으로 마하리슈트라라는 엄청난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2. 엔론사의 양보와 반대급부

미국 휴스턴의 한 회사가 이와 같은 큰 양보를 하게 된 것은 전력 프로젝트보다 다브홀에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90억달러의 거대한 회사는 현재 볼리비아, 브라질, 중국 및 터키 등 전세계에 걸쳐서 29개소의 발전소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엔론은 카타르에 40억달러의 액화 천연가스 처리 플랜트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그 연료의 구매자로서의 인도 발전소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엔론은 다브홀 프로젝트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전세계를 향한 전력 프로젝트 전략이 국부적인 정치상황에 의해서 쉽게 탈선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의 성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프로젝트가 돈을 만드는 것과 같이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도

날드슨, 루프킨 엔드 젠레트 증권사(Donaldson, Lufkin & Jenrette Securities Corp.)의 분석가인 커트 엔라우너(Curt N Launer)씨는 말한다.

이것은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회사와 이 회사의 끈질긴 협상의 대표인 엔론 개발의 최고 경영 책임자(CEO) 레베카 피마크(Rebecca P. Mark)씨가 그들이 관찰하였던 것과 같이 그렇게 콧대가 센 고집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다브홀 사건이 터진 후 모잠비크(Mozambique)의 관리들은 자기들의 남부 아프리카에서의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엔론의 협상전술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 놓았다.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너지 컨설턴트인 페트로룸 파이낸스 회사(Petroleum Finance Co.)의 디렉터인 줄리아 나나이(Julia Nanay)씨는 "다브홀은 공공연하게 논쟁에 정력을 다 써버림으로써 다른 나라 정부의 주의를 집중시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재협상 후 엔론사는 발전소 취소에 대하여 마하리슈트라로부터의 5억달러의 손해액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신속하게 취하였다.

3. 프로젝트의 수익률

엔론은 이 발전소 프로젝트가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

였다. 너무나 낮은 전기요금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다 규모가 큰 발전소를 짓기로 했으며 이 발전소에 관련되는 앞으로의 결정에 있어서 주 전력회사에 발언권을 주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취소로 이 프로젝트의 주식 20%를 뉴올리언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회사인 엔터지사(Entergy Corp.)에 매각함으로써 7500만달러의 이익을 손해보았다. 마크씨는 한때 수익률이 23%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으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수익률 전망에 대하여 마크씨는 논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리스트럭처링의 마크씨는 "우리들로 하여금 매우 합리적인 공정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아직 우리들의 주주들에 대하여는 매우 양호한 수익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인도는 인도대로 계약의 거부를 위협한 변화로 인식하고 있는 국제 비즈니스 사회에서 그들의 평판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의 취소는 이 나라의 반외국적인 힌두 국수주의자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보다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제 승리의 환호를 지르게 되었다. "이것은 인도가 얼마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위대한 사례연구의 대상이다"라고 당초의 합의서에 반대하였던 봄베이의 한 연구소의 소장인 아자이 샤(Ajay Shah)씨는 말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전기회사를 설립하는 규제의 기

해외전력사정

본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수상 피브이 나라시마 라오(P. V. Narasima Rao)가 이끄는 국민회의당(Congress Party)에 의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에 비해서 두 번째의 협상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4. 문제 해결의 파급효과

아직도 잠재적인 장애물이 남아 있다. 그러나 마크씨는 그것들이 중요한 장애

물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엔론과 마하리슈트라라는 새로운 전력 구매합의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금 제공자들이 개정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 건설 공사는 90일 이내에 다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크씨는 말한다. 그는 프로젝트의 제2단계에서의 장비 비용의 절감이 낮추어진 전기 요금에 대한 상쇄작용을 하게 될 것이

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라고 마크씨는 말한다. 다른 거래들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버팀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론으로서는 최선의 방도는 지금 인도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여러 곳에서의 프로젝트들을 정상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자료: *Business Week*, 1996.1.22)

인도와 네팔의 수력개발 프로젝트의 합의

1. 부존자원과 국익

국가의 자원을 버리는 것과 같이 민족주의자들의 노여움을 촉발시키는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네팔의 수상 지리자 프라사트 코이랄라(Girija Prasad Koirala)가 1991년의 그가 취한 조치로 고발당한 것이 바로 이와 똑 같은 것이다.

1991년 12월에 코이랄라 수상은 인도와 네팔 양국의 국경에 걸쳐 있는 마하칼리(Mahakali)강에 인도가 최근에 건설한 타나크플(Tanakpur)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네팔 몫을 담보함으로써 협상을 마무리지었던 것이다. 이의 대가로 인도는 577평방미터의 네팔 땅과 이에 추가해서 9헥타르의 땅이 유

수 제어를 위한 제방으로 수몰되게 되어 있었다.

2. 타나크플 댐

야당들은 그들이 배임의 짐새를 알아차렸다고 생각하였다. 즉 네팔은 타나크플 댐의 발전 설비 120MW 중의 단지 2MW만 받을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 설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물도 초당 150입방피트(cusecs=cubic foot per second) 뿐이었다. 네팔에서 30년만에 처음으로 자유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코이랄라 수상은 1994년에 부분적으로는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한 이와 같은 인도와의 거래에 기인하여 물러나게 되었다.

이제 문제는 해결되었다. 1996년 1월 29일에 인도의 프라나브 무케르지(Pranab Mukherjee) 외무장관과 네팔의 파슈파티 슈셀(Pashupati Shumshere) 수자원장관의 카트만두(Kathmandu)에서의 3일간의 회담 끝에 네팔에게 보다 좋은 조건인 7MW의 전력설비 용량과 1,000cusecs까지의 물을 제공하는 거래로 옛 협상 내용을 대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양국의 각료는 같은 하천의 판체스왈(Pancheswar)에 건설될 6,000MW의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상세내용에 대하여도 잠정합의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8년간의 공기와 4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인도와 네팔의 합의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이 승리자임을 자처하면서 헤어지는 아주 드문 경우의 한 사례이다. 사업가들과 외교관들은 셸 바하들 듀바(Sher Bahadur Deuba) 수상과 피비 나라시마 라오(P. V. Narasimha Rao) 수상간에 있을 1996년 상반기 중에 있을 회담에서 최종결론을 짓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양국간의 공동사업에 완전히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는 길을 닦아 놓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합의서의 당사자인 인도측의 무케르지씨는 "인도-네팔 관계의 새로운 랜드마크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네팔 측의 슈셀씨는 "전례가 없는 성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4. 네팔의 포장 수력 자원: 83,000 MW

최소한도 이것은 네팔에 널리 퍼져있는 수십 년간에 걸쳐 물 문제로 인도와의 불화를 이루어 온 반 인도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950년대에 인도는 제방을 축조하여 네팔 국토를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네팔인들을 분노케 하였다. 네팔인들은 인도와 협력해서 수행되는 공동 수행 프로젝트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인도는 네팔인들의 작업수준이 보잘것 없다는 데에 불평을 하고 있다.

타나크플 문제가 네팔인들에게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다. 물은 네팔의 주요 자연자원이다. 매우 빈약하기는 하지만 네팔에는 6,000개의 개울과 강이 있으며 추정되는 포장수력발전용량은 83,000MW에 이르고 있다. 네팔은 오랜 세월 동안 이와 같은 자원의 개발을 전력이 부족한 북부 인도에 전기를 판매하고 또한 2100만명 인구 중 10%만이 전기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 수요에 충당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희망하여 왔던 것이다. 현재까지 잠재 포장수력의 1%만이 개발된 상태이다.

5. 야당의 반격

코이랄라씨의 반대자들이 1991년의 합의서에 대하여 거의 하루만에 노발대발하게 된 점은 약간의 의문이 남는다. 공산주의자들은 특별히 가혹하게 대처하였으며, 이와 같은 거래가 1990년의 민주화 운동기간 동안 코이랄라씨의 정당을 지원해 준 인도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 민주화 운동으로 그의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이 집권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야당 지도자들은 이 거래를 합법적인 속임수의 한가지라고 생각하였다. 코이랄라씨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것은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라 "이해 사항"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는 결국 코이랄라의 논쟁을 기각하였다.

6. 공동 개발의 새로운 희망

많은 사람들이 카트만두에서 수립된 상호 이해와 양보의 정신은 네팔의 수력 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도와 네팔은 그와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위해서 국제 입찰을 하게 될 것이다. 네팔 관리들은 판체스왈 프로젝트에 대하여 민간 및 외국 자금이 제공됨으로써 네팔이 인도와의 무역적자 2억 9700만달러를 경감시키는데 충당하기 위하여 전력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타나크플 합의서가 인도-네팔 관계를 새로운 기반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반해서 카트만두 회담은 그들 사이의 모든 현안을 해결한 것은 아닌 것이다. 1990년 이후 네팔의 자파(Jhapa)와 모랑(Morang) 지역에 들어온 네팔 민족인 부탄 피난민 10만명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된 바가 없다. 네팔은 이들 피난민의 송환에 대해 인도의 도움을 바라고 있으나 인도의 무케르지 외무장관은 이것은 부탄과 네팔의 문제이며 인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6.2.15)